

## 山椒의 基原식물과 이물 규격에 관한 연구

이영종\*#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 Study on Original Plants of and Foreign Materials Compliance Guidelines for Zanthoxyli Pericarpium

Young-Jong Lee\*#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Seongnam 13120, Korea

####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examine validity of the following guideline for Zanthoxyli Pericarpium in the Korean Pharmacopoeia regarding foreign materials: “the seeds of Zanthoxyli Pericarpium that are mixed should not exceed 20%.”

**Methods** : Varied compliance guidelines for and original plants of Zanthoxyli Pericarpium across countries were compared and contrasted. In order to do this, pharmacopoeias from a number of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used as references.

**Results** : The weights including seed parts were *Z. piperitum* 3.48g, *Z. schinifolium* 2.94g, and *Z. bungeanum* 2.16g; while the weights of peel parts were *Z. piperitum* 1.45g, *Z. schinifolium* 1.69g, and *Z. bungeanum* 0.98g. In terms of weight, *Z. piperitum* was the heaviest with its entire part including the seed, whereas *Z. schinifolium* was the heaviest with its peel part. The proportions of each seed in the whole part were *Z. piperitum* 58.33%, *Z. schinifolium* 42.52%, and *Z. bungeanum* 54.63%. Considering these figures, including seed parts in the guideline up to 20% is inappropriate; however, this guideline is inevitable in order to use seed parts for medicinal purpose.

**Conclusion** :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s if any changes were to be made on the guideline for Zanthoxyli Pericarpium with respect to foreign materials - “the seeds of Zanthoxyli Pericarpium that are mixed should not exceed 20%” - its seed part should firsthand be separated from its peel part and be designated as one kind of medicine. Then, revisions on the foreign materials compliance guidelines for Zanthoxyli Pericarpium should also be made.

**Key words** : Zanthoxyli Pericarpium, *Zanthoxylum piperitum*, *Zanthoxylum schinifolium*, *Zanthoxylum bungeanum*, foreign materials.

## I. 서론

山椒는 神農本草經<sup>1)</sup> 中品에 “秦椒, 味辛溫. 主風邪氣, 溫中除寒痺, 堅齒髮, 明目. 久服 輕身, 好顏色, 耐老增年通神.”이라 수재되어 있고, 下品에 “蜀椒, 味辛溫. 主邪氣欬逆, 溫中, 逐骨節皮膚死肌, 寒濕痺痛, 下氣. 久服之, 頭不白, 輕身增年.”이라 하여 “秦椒”와 “蜀椒”로 구분되어 처음 수재된 이래, 한

의학에서 溫中止痛, 除濕止瀉, 殺蟲止痒의 효능이 있어서 脾胃虛寒으로 脘腹冷痛, 蛔蟲腹痛, 嘔吐泄瀉하거나 肺寒咳喘, 蟲齒牙痛, 陰痒帶下, 濕疹, 皮膚瘙癢 등 증에 상용하고 있는 약재이다.<sup>2)</sup>

山椒는 名醫別錄<sup>3)</sup>에 “蜀椒. 大熱 有毒. 主多除五臟, 六腑寒冷, 傷寒, 溫瘧, 大風, 汗不出, 心腹留飲, 殺蟲, 魚毒. 久服 開腠理, 通血脈, 堅齒髮, 調關節, 耐寒暑. 可作膏藥. 多食令人乏

\*#Corresponding and First author : Young-Jong Lee,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Seongnam 13120, Korea.

· Tel : +82-31-750-5415 · E-mail : garak@gachon.ac.kr

· Received : 9 October 2016 · Revised : 2 November 2016 · Accepted : 16 November 2016

氣, 口閉者 殺人. 一名 巴椒. 生武都及巴郡”이라 하여, 山椒가 大熱 有毒하다고 하였으며, 陶隱居<sup>4,5)</sup>는 “出蜀郡北部, 人家種之, 皮肉厚, 腹裏白, 氣味濃. ……凡用椒皆火微熬之, 今汗出, 謂之汗椒, 今有力勢. 椒目 冷利去水, 則入藥不得相雜耳.”라 하여 처음으로 椒目が 구별되어 山椒와 椒目の 효능이 다름을 기술하였다. 新修本草<sup>4)</sup>에는 “椒目, 味苦寒 無毒. 主水腹脹滿, 利小便.”이라 하여, 山椒는 有毒하지만 椒目は 無毒하다고 하였다.

山椒의 기원으로 대한민국약전<sup>6)</sup>에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 또는 화초 (花椒) *Zanthoxylum bungeanum* Maximowicz (운향과 Rutaceae)의 잘 익은 열매껍질이다.”로 되어 있으며, 약용부위는 “잘 익은 열매껍질”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山椒는 “잘 익은 열매껍질”을 제외하고는 이물이라고 할 수 있다. 山椒의 이물 규격으로 대한민국의약전 11개정<sup>6)</sup>과 日本藥局方 17개정<sup>7)</sup> 모두 “가) 씨가 20.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나) 열매꼭지 및 가지가 5.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다) 씨, 열매꼭지 및 가지 이외의 이물이 1.0% 이상 섞여 있지 않다.”고 하여 이물에 대한 규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씨가 20.0% 이상 섞여 있지 않다.”고 하여 이물 규격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라는 높은 비중이 적용되고 있어서 과연 20.0%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다. 특히 박 등<sup>8)</sup>은 山椒의 이물 허용치를 총량 3.0%로 개정하든가, 씨 2.0%, 열매꼭지와 가지 및 기타 1.0%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전 3개정<sup>9)</sup>부터 山椒의 이물 규격에서 “씨가 20.0% 이상 섞여 있지 않다.”라고 개정되어 현재까지 불편없이 사용된 점에서, 이물 규격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사료되어, 山椒의 이물 규격이 20.0%로 제정된 과정을 살펴보고, 20.0%의 이물 규격이 타당한지 검토하고자,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공정서를 비교하고, 과거 한의학 임상에서 山椒를 사용한 내력을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살펴 봄으로써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연구 방법

### 1. 山椒의 공정서 기원 및 이물 규격 조사

대한민국약전에서 山椒의 기원과 이물 규격의 변천을 조사

하고, 中華人民共和國 약전과 日本藥局方, 臺灣 中藥典, 북한 약전의 山椒 기원과 이물 규격을 비교하였다.

### 2. 山椒의 부위별 약재 효능 조사

山椒의 부위별 약재인 山椒, 椒紅, 椒目の 본초학적 효능을 조사하고, 동의보감에서 사용된 山椒의 처방례를 조사하였다.

### 3. 山椒, 椒紅, 椒目の 크기와 무게 측정

山椒, 椒紅, 椒目の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여 山椒에서 椒目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이물규격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I. 결 과

### 1. 山椒의 기원

2016년 현재, 각국의 山椒 기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 또는 화초 (花椒) *Zanthoxylum bungeanum* Maximowicz 등 3종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과 대만은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Sieb. et Zucc. 와 花椒 *Zanthoxylum bungeanum* Maxim. 만을 기원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초피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 et Zucc. 만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 et Zucc.과 동속식물 모두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공정서에서 山椒의 기원 변천 과정을 살펴 보면, 山椒는 KP1에서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의 성숙한 과피”로 처음 수재되었고, KP3에서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 및 그밖의 동속식물의 잘익은 과피로서 과피에서 분리된 씨를 될 수 있는대로 제거한 것.”이라고 개정하였다. KP6에서 동속식물을 동속 근연식물로 수정하였다가 KP7에서 다시 동속식물로 수정하였다가, KP9에서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 또는 화초 (花椒) *Zanthoxylum bungeanum* Maximowicz”로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자료 1. 각국 공정서의 기원식물]

공정서	약재명 / 라틴 생약명	기원식물
KP11 <sup>6)</sup>	산초(山椒) / <i>Zanthoxyli Pericarpium</i>	초피나무 <i>Zanthoxylum piperitum</i> De Candolle, 산초나무 <i>Zanthoxylum schinifolium</i> Siebold et Zuccarini 또는 화초 (花椒) <i>Zanthoxylum bungeanum</i> Maximowicz
ChP2015 <sup>10)</sup>	花椒 / <i>Zanthoxyli Pericarpium</i>	青椒 <i>Zanthoxylum schinifolium</i> Sieb. et Zucc. 또는 花椒 <i>Zanthoxylum bungeanum</i> Maxim.
JP17 <sup>7)</sup>	山椒 / <i>Zanthoxyli Fructus</i>	<i>Zanthoxylum piperitum</i> De Candolle
DP5 <sup>11)</sup>	초피열매껍질 (산초) / <i>Zanthoxyli Pericarpium</i>	초피나무(산초나무, 초피나무) <i>Zanthoxylum piperitum</i> DC. 및 같은속 식물
TP2 <sup>12)</sup>	花椒 / <i>Zanthoxyli Pericarpium</i>	青椒 <i>Zanthoxylum schinifolium</i> Sieb. et Zucc. 또는 花椒 <i>Zanthoxylum bungeanum</i> Maxim.

[자료 2. 대한민국약전의 山椒 기원식물과 약용부위 변화]

공정서	약재명 / 라틴 생약명	기원식물	약용부위
KP1 <sup>13</sup> , 2 <sup>14</sup>	산초(山椒) / <i>Zanthoxyli Fructus</i>	초피나무 <i>Zanthoxylum piperitum</i> De Candolle	성숙한 과피
KP3 <sup>9</sup> , 4 <sup>15</sup>	산초(山椒) / <i>Zanthoxyli Fructus</i>	초피나무 <i>Zanthoxylum piperitum</i> De Candolle 및 그밖의 동속식물	잘익은 과피로서 과피에서 분리된 씨를 될 수 있는대로 제거한 것.
KP5 <sup>16</sup>	산초(山椒) / <i>Zanthoxyli Fructus</i>	초피나무 <i>Zanthoxylum piperitum</i> De Candolle 또는 그밖의 동속식물	과피로 과피에서 떨어진 씨를 될 수 있는대로 제거한 것.
KP6 <sup>17</sup>	산초(山椒) / <i>Zanthoxyli Fructus</i>	초피나무 <i>Zanthoxylum piperitum</i> De Candolle 또는 그밖의 동속 근연식물	과피로 과피에서 떨어진 씨를 될 수 있는대로 제거한 것.
KP7 <sup>18</sup> , 8 <sup>19</sup>	산초(山椒) / <i>Zanthoxyli Fructus</i>	초피나무 <i>Zanthoxylum piperitum</i> De Candolle 또는 기타 동속식물	과피로서 씨를 될 수 있는 대로 제거한 것.
KP9 <sup>20</sup> , 10 <sup>21</sup> , 11 <sup>6</sup>	산초(山椒) / <i>Zanthoxyli Pericarpium</i>	초피나무 <i>Zanthoxylum piperitum</i> De Candolle, 산초나무 <i>Zanthoxylum schinifolium</i> Siebold et Zuccarini 또는 화초 (花椒) <i>Zanthoxylum bungeanum</i> Maximowicz	잘익은 열매껍질

## 2. 山椒, 椒紅, 椒目の 효능

名醫別錄<sup>3)</sup>에서는 “蜀椒는 八月에 열매를 채취한다.”라고 하여 蜀椒를 열매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集注本草<sup>4,5)</sup>에서 “椒目, 冷利去水, 則入藥不得相雜耳.”이라 하여 처

음으로 椒目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唐代的 藥性論<sup>22)</sup>에서 椒目이 蜀椒와 구별되어 별도의 약재로 독립되었다. 宋代的 圖經本草<sup>23)</sup>에서는 “服食方으로는 椒紅만을 먹으나 補下에는 蜀椒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열매껍질인 椒紅과 씨를 포함한 蜀椒를 구별하고 효능도 구별하였다.

[자료 3. 본초문헌의 山椒 명칭과 효능]

본초문헌 (시대)	약재명	성미	효능	비고
神農本草經 <sup>1)</sup> (漢代)	蜀椒	味辛溫	主邪氣欬逆, 溫中, 逐骨節皮膚死肌, 寒濕痺痛, 下氣, 久服之, 頭不白, 輕身增年.	
	秦椒	味辛溫	主風邪氣, 溫中除寒痺, 堅齒髮, 明目, 久服 輕身, 好顏色, 耐老增年通神.	
名醫別錄 <sup>2)</sup> (南北朝時代)	蜀椒	大熱 有毒	主多除五臟, 六腑寒冷, 傷寒, 溫瘧, 大風, 汗不出, 心腹留飲, 殺蟲, 魚毒, 久服 開腠理, 通血脈, 堅齒髮, 調關節, 耐寒暑, 可作膏藥, 多食令人乏氣, 口閉者 殺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一名 巴椒, 唐穀, 生 武都及巴郡</li> <li>• 八月 採實 陰乾</li> </ul>
	秦椒	性溫 熱寒 有毒	主治喉痺, 吐逆, 疝瘕, 去老血, 山後諸疾, 腹痛, 出汗, 利五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生 太山及秦嶺上, 或瑯琊.</li> <li>• 八月 九月 採實</li> </ul>
集注本草 <sup>4,5)</sup> (梁)	蜀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出蜀郡北部, 人家種之, 皮肉厚, 腹裏白, 氣味濃, 江陽 晉原及建平間 亦有而細赤, 辛而不香, 力勢不如巴郡.</li> <li>• 凡用椒皆火微熬之, 令汗出, 謂之汗椒, 今有力勢.</li> </ul>	
	椒目		冷利去水, 則入藥不得相雜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으로 椒目이라는 이름이 나타난다.</li> </ul>
新修本草 <sup>4)</sup> (唐)	秦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今從西來, 形似椒而大, 色黃黑, 味亦頗有椒氣, 或呼爲大椒</li> </ul>
	蜀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今椒出金州西域者 最善.</li> </ul>
藥性論 <sup>22)</sup> (唐)	蜀椒	有小毒	能治冷風頑頭風, 下汨, 腰脚不遂, 虛損留結, 破血, 下諸石水, 能治嗽, 主腹內冷而痛, 除齒痛.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又名陸拔</li> </ul>
	椒目	味苦辛 有小毒	治十二種水氣, 主和巴豆, 菖蒲, 松脂, 以蠟溶爲筒子, 內耳中, 抽腎氣虛, 耳中有風水鳴, 或如鐘磬之聲, 卒暴聾, 一日一易, 若神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으로 蜀椒과 椒目이 약재 항목이 구별됨.</li> </ul>
日華子本草 <sup>24)</sup> (宋)	漢椒		破癥結, 開胃, 治天行時氣溫疾, 產後宿血, 治心腹氣, 壯陽, 療陰汗, 暖腰膝, 縮小便	
	椒目		主膀胱急	
圖經本草 <sup>23)</sup> (宋)	蜀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蜀椒는 武都 川谷과 巴郡에 生한다. 지금의 歸州, 峽及 蜀川과 陝洛이며, 人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 높이는 4-5척으로 吳茱萸와 비슷하나 작고, 針刺가 있다. 잎은 단단하며 매끄러운데 가히 살아 먹을 수 있는데 매우辛香하다. 사월에 열매가 맺는데 꽃은 없으며 잎 사이에 小豆顆로 등글며, 껍질은 紫赤色이며 팔월에 열매를 따서 붉에 말린다.</li> <li>• 江淮와 북쪽에도 모두 있는데, 줄기와 열매가 모두 같은 종류이다. 다만 蜀中の 것이 皮肉厚하고 腹裏白하며 氣味가 濃烈할 따름이다.</li> <li>• 服食方으로는 椒紅만을 먹으나, 補下에는 蜀椒를 사용하여야 한다.</li> </ul>	
	椒紅			
	秦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秦椒는 泰山 川谷과 秦嶺, 或 瑯琊에 生한다. 지금의 秦, 鳳과 明, 越, 金, 商州에 모두 있다. 초가을에 꽃이 피고 가을 말에 결실한다. 9월과 10월에 채취한다.</li> </ul>	

본초문헌 (시대)	약재명	성미	효능	비고
本草綱目 <sup>25)</sup> (明)	椒紅	辛溫 有毒	散寒除濕, 解鬱結, 消宿食, 通三焦, 溫脾胃, 補右腎命門, 殺蛔蟲, 止瀉痢	• 李時珍은 蜀椒를 椒紅으로 사용함.
	蜀椒		椒目下達, 能行滲道, 不行穀道, 所以能下水燥濕, 定喘小蟲也.	
	椒目	苦寒 無毒	[宗爽曰]椒目治盜汗. [震亨曰]除喘不止 [肘后方]留飲腹痛 [海上方]痔漏腫痛 [金匱鉤玄] 崩中帶下 [本事方]眼生黑花	
	秦椒 (椒紅)	辛溫 有毒	齋痺尿多, 手足心腫, 損瘡中風, 牙痛風痛, 百蟲入耳	
東醫寶鑑 <sup>26)</sup> (光海君)	蜀椒 초피나모어름	性烈 味辛有毒	主皮膚死肌, 寒濕痺痛, 除六腑寒冷, 鬼疰蟲毒, 殺蟲魚毒, 除齒痛, 壯陽, 止陰汗, 暖腰膝, 縮小便, 下氣.	• 凡使 須去目及閉口者勿用, 合口者殺人. 微火熬之 令汗出, 乃有勢力. 春之取紅未用.
	椒目 천초 <sup>14)</sup>	性寒 味苦 無毒 一云小毒	治十二種水氣, 能行水 利小便, 治水蟲, 此藥 只行滲道, 不行穀道, 所以下水最速	• 微炒用之.
	秦椒 분디어름	性溫 味辛 有毒	主大風完痺 堅齒髮, 明目, 療腹中冷痛, 止痢.	• 秦椒 樹葉及莖子, 都似蜀椒, 但味短實細, 色黃黑.(本草) • 出四川謂之蜀椒, 川椒, 出關陝謂之秦椒(入門)

### 3. 東醫寶鑑에서 사용된 山椒의 처방 용례

山椒, 椒紅, 椒目이 한의학 임상에서 구별 사용된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東醫寶鑑<sup>16)</sup>에서 이들 약재가 사용된 처방을 조

사하였다. 東醫寶鑑의 湯液編에는 蜀椒라는 이름으로 수재되어 있으나, 임상 처방에서는 川椒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川椒, 椒目, 椒紅이 배합된 처방은 모두 46개 처방이었으며, 이 가운데 川椒 39개 처방, 椒目 5개 처방, 椒紅 2개 처방이었다.

[자료 4. 東醫寶鑑에 수재된 山椒 배합처방과 효능]

번호	분류	처방명	약재	효능	비고
1	身形	遐齡萬壽丹	川椒微炒出汗	服食魂魄安	
2	身形	延齡固本丹	川椒,	治諸虛百損, 中年陽事不舉, 未至五十, 鬚髮先白	
3	胞	通經丸	川椒	治室女月候不通, 或成血瘕	
4	蟲	烏梅丸	川椒(眞椒)	治蛔厥心腹痛	
5	眼	加減駐景元	川椒炒,	治肝腎俱虛, 兩眼昏暗	
6	眼	神仙退雲丸	川椒炒	治一切翳膜, 內外障, 昏無睛者	
7	眼	明目細辛湯	川椒	治眼楞緊急, 致倒睫拳毛, 上下瞼皆赤爛, 眼痛流淚, 隱澁難開	
8	眼	羌活退翳湯	川椒	治太陽寒水, 翳膜遮睛不見物	
9	眼	撥雲退翳丸	川椒	消翳膜	
10	眼	五秀重明丸	川椒開口者	治翳膜遮睛, 隱澁昏花	
11	眼	呂仙翁方	川椒微炒	治老人內障昏暗	
12	眼	椒目丸	椒目	治久年眼生黑花昏暗	椒目:眼花
13	耳	磁石羊腎丸	川椒	治諸般耳聾, 補虛開竅, 行鬱散風去濕.	
14	耳	補骨脂丸	川椒,	治勞損耳聾	
15	耳	燒腎散	川椒炒	治腎虛耳聾	
16	耳	龍腦膏	椒目	治耳卒聾聵	椒目:耳聾
17	耳	透耳筒	椒目	治腎氣虛耳鳴 如風水聲 或如鐘磬響 或卒暴聵	椒目:耳聾
18	牙齒	一笑散	川椒爲末	治蟲牙疼不可忍	
19	牙齒	椒塩散	川椒	治蟲牙痛	
20	牙齒	蜂窩散	川椒	治風牙蟲牙, 痛不可忍	
21	牙齒	開笑散	川椒	治風冷齒痛	
22	牙齒	香椒散	川椒	治冷證齒痛	

번호	분류	처방명	약재	효능	비고
23	牙齒	固齒散	川椒炒	牙齒脫落	
24	鼻	川椒散	紅椒炒	治鼻肌	椒紅:鼻肌
25	鼻	細辛膏	川椒	治鼻塞腦冷, 清涕不止	
26	鼻	麗澤通氣湯	川椒	治鼻不聞香臭, 此肺經有風熱也	
27	鼻	芎藭散	川椒	治鼻塞右爲廳	
28	鼻	通竅湯	川椒	治感風寒, 鼻塞聲重, 流涕不聞香臭	
29	鼻	川椒散	椒紅	治鼻肌	椒紅:鼻肌
30	虛勞	小安腎丸	川椒炒	治虛勞, 腎氣冷慙, 夜多漩濁, 漸覺羸瘦, 面黑目暗耳鳴, 牙齒蛀痛	
31	脹滿	吳茱萸湯	川椒炒	治濁氣在上生脹脹, 又陰盛生寒, 腹滿脹脹, 常如飽, 不欲食飲	
32	脹滿	防己椒瞶丸	椒目	治水脹, 凡脹病腹滿口舌乾燥, 此腸胃間有水氣也	椒目:浮腫
33	浮腫	椒歧元	椒目	治浮腫神方	椒目:浮腫
34	積聚	萬病元	川椒	療七種瘧塊, 八種痞病, 五種癰瘤, 十種疔竹, 七種飛尸, 十二種蠱毒, 五種黃疸, 十二種癰疾, 十種水病, 八種大風, 十二種濕痺, 及積聚脹滿, 久遠心腹痛, 疳蛔寸白諸虫, 久積痰飲, 消瘦疲困, 或婦人子藏中瘀血凝滯, 因此斷產	
35	諸瘡	香鱉湯	川椒	治楊梅瘡毒, 筋骨疼痛	
36	諸瘡	一掃光	川椒	治小兒頭瘡, 及多虱子, 少陽成瘡, 膿水不止	
37	諸瘡	洗藥方	川椒	治諸般惡瘡	
38	諸瘡	補損當歸散	川椒	治墮撲折傷, 疼痛叫號	
39	諸瘡	茯苓湯	川椒	治遠近楊梅天疱瘡毒, 甚至腐爛肌肉, 膿汁流出, 臭不可聞, 痛不可忍	
40	諸瘡	取輕粉法	川椒	取出腹內輕粉之毒, 可免後患	
41	諸瘡	仙遺糧	川椒	善治久病天疱楊梅癰濕, 及曾誤服輕粉, 肢體廢壞, 筋骨疼痛者, 能收其毒而祛其風, 補其虛	
42	諸瘡	洗疔湯	川椒	治下疳瘡	
43	諸瘡	蠟礬紙	川椒	治內腫瘡神效	
44	諸瘡	神捷膏	川椒	治內外腫瘡, 久年不愈	
45	雜方	雲母膏	川椒	治一切癰疽 惡瘡 腫毒 折傷 瘰癧 骨疽 內疽 乳癰 肺癰 腸癰, 並可外貼內服	
46	婦人	濟陰丹	川椒	治婦人久冷無子, 及數經墮胎, 皆因衝任虛損, 胞內宿挾疾病, 經候不調, 或崩漏帶下36疾, 皆令孕育不成, 以至絕嗣, 亦治產後百病, 令人有孕, 及生子充實無病	

#### 4. 기원식물에 따른 椒紅, 椒目の 크기 및 무게

山椒의 기원식물인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 화초 (花椒) *Zanthoxylum bungeanum* Maximowicz 등 3종의 椒紅과 椒目の 크기 및 무게를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초피나무는 초피, 산초나무는 산초, 花椒는 화초로 기술하였다.

##### 1) 초피, 산초, 화초의 크기

초피, 산초, 화초의 열매 전체의 크기와 씨 크기는 Table 1과 같다. 열매 크기는 산초는 4.07mm에서 5.69mm로 평균 4.88mm이었고, 초피는 3.62mm에서 4.94mm로 평균 4.45mm이었으며, 화초는 4.16mm에서 4.92mm로 평균 4.63mm이었다. 산초가 가장 컸고, 초피가 가장 작았다. 씨

크기는 산초는 2.93mm에서 3.24mm로 평균 3.08mm이었고, 초피는 2.80mm에서 3.42mm로 평균 2.94mm이었으며, 화초는 2.19mm에서 3.55mm로 평균 2.95mm이었다. 씨 크기 역시 산초가 가장 컸다.

##### 2) 초피, 산초, 화초의 무게

초피, 산초, 화초의 열매 전체의 무게와 열매 껍질 및 씨 무게는 Table 2와 같다. 각각 100개를 측정된 결과, 열매 100개 전체의 무게는 초피는 평균 3.48g, 산초는 2.94g, 화초는 2.16g으로 초피가 가장 무거웠으며, 열매껍질 무게는 산초는 평균 1.69g, 초피는 1.45g, 화초는 0.98g으로 산초가 가장 무거웠고, 씨 무게는 산초는 평균 1.25g, 초피는 2.03g, 화초는 2.16g으로 초피가 가장 무거웠다. 크기는 산초가 가장 컸지만, 무게는 초피가 가장 무거웠다. 초피, 산초, 화초 구별 없이 전

체를 평균한 무게는 열매껍질이 1.37g, 씨가 1.49g, 전체가 2.86.g이었다.

산초의 이물 규격에서 이물로 평가받는 씨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한 결과, 초피는 58.33%, 산초는 42.52%, 화초는 54.63%이었고, 초피, 산초, 화초 구별 없이 통합한 것은

52.10%로 씨가 열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피와 화초는 씨가 열매껍질보다 많았는데 비하여, 산초는 열매껍질보다 적었다. 이로 보아 산초는 크기는 초피와 화초보다 컸지만, 씨의 무게는 가장 적고 열매껍질의 무게는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The Size of Peel and Seed of Zanthoxyli Pericarpium (unit; mm)

		1	2	3	4	5	6	7	8	9	10	mean
<i>Z. piperitum</i>	peel	4.46	4.67	3.98	4.86	4.94	3.86	4.81	4.80	3.62	4.53	4.45
	seed	2.88	2.80	2.81	2.93	2.87	3.42	2.85	2.92	2.90	3.03	2.94
<i>Z. schinifolium</i>	peel	4.07	4.24	4.43	5.24	5.69	5.12	5.60	4.34	4.95	5.12	4.88
	seed	2.93	3.37	2.93	3.05	3.09	3.24	3.02	3.03	3.01	3.14	3.08
<i>Z. bungeanum</i>	peel	4.87	4.92	4.52	4.60	4.68	4.82	4.29	4.16	4.77	4.70	4.63
	seed	3.55	2.89	2.89	3.18	3.40	2.19	2.92	2.92	2.73	2.84	2.95

Table 2. The Weight of Peel and Seed of Zanthoxyli Pericarpium (Weight/100grains)

		1	2	3	4	5	mean	proportion (%)
<i>Z. piperitum</i>	peel	1.46g	1.46g	1.44g	1.44g	1.45g	1.45g	41.67
	seed	2.04g	2.02g	2.02g	2.04g	2.03g	2.03g	58.33
	whole	3.50g	3.48g	3.46g	3.48g	3.48g	3.48g	-
<i>Z. schinifolium</i>	peel	1.60g	1.78g	1.69g	1.63g	1.75g	1.69g	57.48
	seed	1.14g	1.30g	1.10g	1.60g	1.10g	1.25g	42.52
	whole	2.74g	3.08g	2.79g	3.23g	2.85g	2.94g	-
<i>Z. bungeanum</i>	peel	1.02g	0.96g	1.00g	0.92g	0.98g	0.98g	45.37
	seed	1.18g	1.30g	1.16g	1.24g	1.02g	1.18g	54.63
	whole	2.20g	2.26g	2.16g	2.16g	2.00g	2.16g	-
Total	peel	-	-	-	-	-	1.37g	47.90
	seed	-	-	-	-	-	1.49g	52.10
	whole	-	-	-	-	-	2.86g	-

### 5. 山椒의 이물 규격

약용부위는 각국 모두 열매껍질인데, 중국약전에서는 열매를 햇볕에 말려 씨와 잡질을 제거한다고 하였고, 일본약국방에서는 성숙한 열매껍질로서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를 최대한 제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북한약전에서는 그늘에 말려 씨를 털고 잡질을 골라버린 다음 열매껍질만을 모은다고 하였다. 그런데 라틴 생약명에서 우리나라, 중국, 북한, 대만은 모두 Pericarpium 인데 日本藥局方<sup>7)</sup>에서는 Fructus로 되어 있다. 일본약국방은 약용부위를 성숙한 열매껍질이라고 정의하긴 하였지만 “열매

껍질과 분리된 씨를 최대한 제거한 것”이라고 하여, 열매껍질과 분리되지 않은 씨는 제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Fructus라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현재, 각국 공정서의 山椒 이물 규격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물 규격의 내용은 “1) 씨 : 이 약은 씨가 20.0 % 이상 섞여 있지 않다. 2) 열매꼭지 및 가지 : 이 약은 열매꼭지 및 가지가 5.0 % 이상 섞여 있지 않다. 3) 그 밖의 이물 : 이 약은 씨, 열매꼭지 및 가지 이외의 이물이 1.0 % 이상 섞여 있지 않다.”로 같으며, 북한은 씨, 열매꼭지 등이 2 % 아래로 되어 있고, 중국과 대만은 이물 규격이 없다.

[자료 5. 각국 공정서의 山椒 약용부위와 이물 규격]

공정서	약제명 / 라틴 생약명	약용부위	이물규격
KP11 <sup>6)</sup>	산초(山椒) / Zanthoxyli Pericarpium	잘익은 열매껍질	1) 씨 : 이 약은 씨가 20.0 % 이상 섞여 있지 않다. 2) 열매꼭지 및 가지 : 이 약은 열매꼭지 및 가지가 5.0 % 이상 섞여 있지 않다. 3) 그 밖의 이물 : 이 약은 씨, 열매꼭지 및 가지 이외의 이물이 1.0 % 이상 섞여 있지 않다.
ChP2015 <sup>10)</sup>	花椒 / Zanthoxyli Pericarpium	성숙한 열매껍질 (열매를 햇볕에 말려, 씨와 잡질을 제거한다.)	없음
JP17 <sup>7)</sup>	山椒 / Zanthoxyli Fructus	성숙한 열매껍질로서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를 최대한 제거한 것	1) 씨 : 이 약은 씨가 20.0 % 이상 섞여 있지 않다. 2) 열매꼭지 및 가지 : 이 약은 열매꼭지 및 가지가 5.0 % 이상 섞여 있지 않다. 3) 그 밖의 이물 : 이 약은 씨, 열매꼭지 및 가지 이외의 이물이 1.0 % 이상 섞여 있지 않다.
DP5 <sup>11)</sup>	조피열매껍질(산초) / Zanthoxyli Pericarpium	열매껍질 (그늘에 말려 씨를 털고 잡질을 골라버린 다음 열매껍질만을 모은다.)	혼입물 - 씨, 열매꼭지 등이 2 % 아래
TP2 <sup>12)</sup>	花椒 / Zanthoxyli Pericarpium	잘익은 열매껍질	없음

#### IV. 고 찰

山椒 기원식물로 우리나라<sup>6)</sup>는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 또는 화초 (花椒) *Zanthoxylum bungeanum* Maximowicz 등 3종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sup>10)</sup>과 대만<sup>12)</sup>은 초피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 et Zucc. 와 花椒 *Zanthoxylum bungeanum* Maxim. 만을 기원으로 하고 있고, 일본<sup>7)</sup>은 초피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 et Zucc. 만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북한<sup>11)</sup>은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 et Zucc. 과 동속식물 모두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초피나무 *Z. piperitum* De Candolle는 우리나라 황해도 이남과 일본의 홋카이도로부터 큐슈에 이르기까지 분포하고, 산초나무 *Z.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는 우리나라 남북한 전역과 일본, 대만, 만주, 중국 등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sup>27,28)</sup>, 화초(花椒) *Z. bungeanum* Maximowicz는 우리나라에는 분포하지 않고, 중국의 四川, 陝西, 山東, 河北 등지에 분포한다.<sup>2)</sup>

山椒는 1958년에 제정된 KP1에서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의 성숙한 과피”로 처음 수재되었고, 1976년 KP3에서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 및 그밖의 동속식물의 잘익은 과피로서 과피에서 분리된 씨를 될 수 있는대로 제거한 것.”이라고 개정하였다. KP6에서 동속식물을 동속 근연식물로 수정하였다가 KP7에서 다시 동속식물로 수정하였다가, 2007년 KP9에서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De Candolle,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 또는 화초 (花椒) *Zanthoxylum bungeanum* Maximowicz”로 현재와 같이 3종 식물로 개정되었다. *Zanthoxylum* 의 동속식물로 우리나라에 머귀나무 *Z. ailanthoides* Siebold et Zuccarini, 좀머귀나무 *Z. fauriei* (Nakai) Ohwi, 개산초나무 *Z. armatum* De Candolle, 왕초피나무 *Z. coreanum* Nakai 등이 있는데, 머귀나무의 수피는 浙桐皮라 하여 海桐皮의 일종으로 사용되고 있고, 열매는 食茱萸로 사용된다. 개산초나무의 열매는 竹葉椒, 씨는 竹葉椒子로 사용되므로<sup>2)</sup>, 동속식물 모두를 山椒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神農本草經<sup>1)</sup> 下品에 蜀椒, 中品에 秦椒가 서로 다른 약재로 수재되어 있다. 이후 名醫別錄<sup>3)</sup>, 集注本草<sup>4,5)</sup>, 新修本草<sup>4)</sup>, 開寶本草<sup>5)</sup>, 本草綱目<sup>25)</sup>은 물론 우리나라의 東醫寶鑑<sup>26)</sup> 湯液編에도 蜀椒와 秦椒를 구별하고 있다. 名醫別錄<sup>3)</sup>에 巴椒와 詹藪(당의)라는 이름이 사용되었고, 日華子本草<sup>24)</sup>에서는 蜀椒의 정명을 漢椒라고 하였고, 本草綱目<sup>25)</sup>에서는 蜀椒의 이명으로 川椒와 點椒를 사용하였다. 李時珍<sup>25)</sup>은 “蜀은 삼국시대의 나라 이름이고, 漢은 강물 이름으로 지금의 川西인 成都, 廣漢, 潼川 지방이다. 巴는 나라이름이며 강물 이름인데 지금의 川東인 重慶, 順慶, 閬中이다. 川은 巴蜀의 총칭으로 동서남북으로 四川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蜀椒, 巴椒, 漢椒, 川椒는 모두 四川 지방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할 수 있다. 李時珍<sup>25)</sup>은 “秦椒는 花椒를 말한다. 처음에는 秦의 땅에서 산출되었으나 지금은 도처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하여, 秦椒를 花椒라 하였다. 中華本草<sup>2)</sup>에서는 열매가 성숙하여 開

裂될 때 꽃처럼 되므로 花椒라 한다 하였다. 또한 中華本草<sup>2)</sup>에서는 산지 등을 검토하여 현재 중국에서 秦椒라 불리는 것은 青椒 *Z. schinifolium* Sieb. et Zucc. 이며, 蜀椒라고 불리는 것은 花椒 *Z. bungeanum* Maxim. 라고 하였다. 그런데 東醫寶鑑<sup>26)</sup> 湯液編에서는 蜀椒는 “초피나무여름”, 秦椒는 “분디여름”이라 하였는데, 이<sup>27)</sup>에 의하면 분지나무는 산초나무의 이명이다. 그러므로 초피나무는 초피나무 *Z. piperitum* De Candolle이고, 분디는 산초나무 *Z.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를 가르키므로 현재 중국에서 말하는 青椒와 花椒의 개념과는 달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약국방의 정명으로 되어 있는 山椒라는 명칭은 본초문헌에서 찾을 수 없으며, *Z. piperitum* De Candolle을 山椒라고 하는 日本藥局方<sup>7)</sup>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山椒, 椒紅, 椒目的 사용 범위와 효능은 구별되고 있다. 山椒는 神農本草經<sup>1)</sup>에 “蜀椒, 主邪氣欬逆, 溫中, 逐骨節皮膚死肌, 寒濕痺痛, 下氣. 久服之. 頭不白, 輕身增年.”이라고 처음 수재된 이래 溫中止痛, 除濕止瀉, 殺蟲止痒의 효능이 있어서 脾胃虛寒으로 脘腹冷痛, 蛔蟲腹痛, 嘔吐泄瀉하거나 肺寒咳嗽, 蟲齒牙痛, 陰痒帶下, 濕疹, 皮膚瘙癢 등 중에 상용되고 있다.<sup>2)</sup>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에서의 山椒는 씨를 포함한 열매로 사용되었으나, 集注本草 이후, 후대로 내려오면서 山椒의 효능은 일반적으로 열매껍질인 椒紅의 효능과 동일시 된다.

椒目은 集注本草<sup>4,5)</sup>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효능이 “冷利去水”하므로 蜀椒와는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唐代的 藥性論<sup>24)</sup>에서는 椒目を 蜀椒와 구별하여 별도의 약재로 독립시켰으며, “治十二種水氣, 主和巴豆, 菖蒲, 松脂, 以蠟溶爲筒子, 內耳中, 抽腎氣虛, 耳中有風水鳴, 或如鐘響之聲, 卒暴聾. 一日一易, 若神驗.”라 하였다. 이후 椒目은 利水消腫과 祛痰平喘의 효능이 있어서 水腫脹滿, 哮喘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sup>2)</sup>

山椒, 椒紅, 椒目이 한의학 임상에서 구별 사용된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東醫寶鑑에 사용된 처방을 분류하여 보면, 諸瘡門에 川椒 10개 처방, 眼門에 川椒 7개 처방, 椒目 1개 처방으로 8개 처방, 牙齒門에 川椒 6개 처방, 鼻門에 川椒 4개 처방, 椒紅 2개 처방으로 6개 처방, 耳門에 川椒 3개 처방, 椒目 2개 처방으로 5개 처방, 身形門에 川椒 2개 처방, 脹滿門에 川椒 1개 처방, 椒目 1개 처방으로 2개 처방, 浮腫門에 椒目 1개 처방, 胞門과 蟲門, 虛勞門, 積聚門, 雜方門, 婦人門에 각 川椒 1개 처방이다. 椒目이 眼花, 耳聾, 浮腫 등의 증상에 사용되고 있고, 椒紅은 鼻鼾의 증상에 사용되고 있다.

川椒는 보통 열매껍질인 椒紅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椒目이 眼花, 耳聾 등의 처방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眼門과 耳門의 眼花와 耳聾에 사용되는 처방의 川椒는 열매껍질 뿐만 아니라 椒目を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金匱要略의 防己椒目葶藶大黃丸에 근거한 防己椒目丸 등 주요 처방에 椒目を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의학 임상에서 椒目的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약용부위는 각국 모두 열매껍질인데, 중국약전<sup>10)</sup>에서는 열매를 햇볕에 말려 씨와 잡질을 제거한다고 하였고, 일본약국방<sup>7)</sup>에서는 성숙한 열매껍질로서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를 최

대한 제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북한약전<sup>11)</sup>에서는 그늘에 말려 씨를 털고 잡질을 골라버린 다음 열매껍질만을 모은다고 하였다. 그런데 라틴 생약명에서 우리나라, 중국, 북한, 대만은 모두 Pericarpium인데 日本藥局方<sup>7)</sup>에서는 Fructus로 되어 있다. 일본약국방은 약용부위를 성숙한 열매껍질이라고 정의하긴 하였지만 “열매껍질과 분리된 씨를 최대한 제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열매껍질과 분리되지 않은 씨는 제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Fructus라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약국방 해설서<sup>29)</sup>에 “열매껍질에서 분리되어 밖으로 나온 씨는 되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존중에 열매껍질이 갈라져 분리된 씨의 양이 다시 증가하므로 이물 허용량이 크게 규정되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더욱 뚜렷해진다.

우리나라 역대 공정서의 山椒의 이물 규격은 1958년 제정된 KP1에서 “이 약은 과병(果柄), 가지 및 그 밖의 이물이 30% 이상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로 하여 이물이 30% 이상으로 제정되었으며, 1976년 개정된 KP3에서 씨와 과병 및 가지, 그 밖의 이물로 구별되어 씨는 20.0%, 과병 및 가지는 5.0%, 씨, 열매꼭지 및 가지 이외의 이물이 1.0%로 구별되어 개정되었다. 이후 표현이 약간씩 바뀌었지만 주된 내용은 2014년 KP11까지 변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日本藥局方은 JP5<sup>30)</sup>에서 山椒가 처음 수재되었으나, 이물 규격은 없었으며, 1951년 개정된 JP6<sup>31)</sup>에서 “이 약은 과병(果柄), 가지 및 그 밖의 이물이 30% 이상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처음 이물규격을 규정하였고, 1976년에 개정된 JP9<sup>32)</sup>에서 씨는 20.0%, 과병 및 가지는 5.0%, 씨, 열매꼭지 및 가지 이외의 이물이 1.0%로 구별되어 개정되었다. KP와 JP의 이물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1958년 KP1이 제정된 당시에 일본은 1951년 개정된 JP6이었고, 1976년 KP3이 개정된 당시에 일본은 1976년 개정된 JP9이었는데, KP1은 JP6, KP3은 JP9의 이물 규격 개정 내용을 참조하여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日本藥局方에서는 山椒가 처음 수재된 JP5에서부터 2016년 JP17에 이르기까지 라틴 생약명이 Fructus로 변함이 없고, 이물 규격으로 씨는 20.0%, 과병 및 가지는 5.0%, 씨, 열매꼭지 및 가지 이외의 이물이 1.0%로 구별되어 개정된 JP6에서부터 2016년 JP17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日本藥局方에서 이물규격에서 씨를 무려 20.0% 까지 허용하고, 약용부위를 Fructus로 한 것은 씨를 완벽하게 제거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에서 山椒의 약용부위를 열매껍질로 하고, 이물규격을 정하지 않은 것은 花椒와 椒目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王<sup>33)</sup>이 “花椒는 약과 식품으로 모두 쓰이고 조미료 위주로 쓰이며 그 다음이 약재로의 이용이다. 또한 방향유를 뽑아낼 수 있다. 씨에서 기름을 짤 수 있으며 잎은 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화초는 전국 매년 생산 판매량이 수백만 kg 이상이며 실제 약으로 이용하는 용량은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山椒가 약재로 사용되기 보다는 절대적으로 식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溫中散寒하는 열매껍질을 약용부위로 한다고 볼 수 있다. 日本藥局方解説書<sup>29)</sup>에도 “나라현, 와카야마현에서 약 25톤이 생산된다. 중국에서 수입품도 있으나 주로 향신료로 사용된다. 생약 제조용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朝

倉山椒 *Z. piperitum* De Candolle forma *inermis* Makino를 주로 사용하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花椒는 향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열매껍질은 중국이나 일본 모두 溫中散寒의 목적인 향신료로 사용되고, 약용은 열매껍질 뿐만 아니라 씨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한의학 임상에서도 溫中散寒의 목적보다는 利水消腫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椒目 또는 씨가 포함되어 있는 山椒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 등<sup>8)</sup>이 “山椒의 이물 허용치를 총량 3.0%로 개정하든가, 씨 2.0%, 열매꼭지와 가지 및 기타 1.0%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은 日本藥局方의 취지를 잘 못 이해한 것이라고 하겠다.

초피, 산초, 화초의 열매 크기를 실측한 결과는 산초는 4.07mm에서 5.69mm로 평균 4.88mm이었고, 초피는 3.62mm에서 4.94mm로 평균 4.45mm이었으며, 화초는 4.16mm에서 4.92mm로 평균 4.63mm이었다. 산초가 가장 컸고, 초피가 가장 작았다. 씨 크기는 산초는 2.93mm에서 3.24mm로 평균 3.08mm이었고, 초피는 2.80mm에서 3.42mm로 평균 2.94mm이었으며, 화초는 2.19mm에서 3.55mm로 평균 2.95mm이었다. 씨 크기 역시 산초가 가장 컸다. 集注本草<sup>4,5)</sup>에 “秦椒, 形似椒而大, 色黃黑, 味亦頗有椒氣, 或呼爲大椒”라 하였는데, 中華本草에서 秦椒가 산초나무 *Z. schinifolium* Siebold et Zuccarini라 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초피, 산초, 화초의 열매 전체의 무게와 열매 껍질 및 씨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100개를 측정된 결과, 열매 100개 전체의 무게는 초피는 평균 3.48g, 산초는 2.94g, 화초는 2.16g으로 초피가 가장 무거웠으며, 열매껍질 무게는 산초는 평균 1.69g, 초피는 1.45g, 화초는 0.98g으로 산초가 가장 무거웠고, 씨 무게는 산초는 평균 1.25g, 초피는 2.03g, 화초는 2.16g으로 초피가 가장 무거웠다. 크기는 산초가 가장 컸지만, 무게는 초피가 가장 무거웠다. 초피, 산초, 화초 구별 없이 전체를 평균한 무게는 열매껍질이 1.37g, 씨가 1.49g, 전체가 2.86g이었다.

산초의 이물 규격에서 이물로 평가받는 씨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한 결과, 초피는 58.33%, 산초는 42.52%, 화초는 54.63%이었고, 초피, 산초, 화초 구별 없이 통합해서 측정한 것은 52.10%로 씨가 열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60%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KP와 JP의 이물 규격에서 씨를 20%로 정한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씨의 절반정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서에서 山椒의 약용부위를 열매껍질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또 씨를 제거하지 않은 山椒에서 씨가 차지하는 비율이 40%~60%임을 고려할 때, 이물 규격에서 씨가 20.0%로 된 것은 山椒의 전체(椒紅과 椒目 통합)의 규격에도 맞지 않고, 椒紅의 규격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山椒에서 씨를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이물규격에서 씨를 20.0%라고 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 山椒의 약용부위를 열매껍질로만 한정한다면 이물규격에 씨를 2.0% 이하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山椒의 약용부위를 열매껍질로만 한정하여 이물규격에서 씨를 2.0% 이하로 수정한다면, 한의

학에서 다용하는 씨(椒目)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공정서에 반드시 椒目を 신설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山椒의 기원을 본초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공정서의 이물 규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神農本草經의 蜀椒는 花椒 *Z. bungeanum* Maxim. 이고, 秦椒는 산초나무 *Z. schinifolium* Sieb. et Zucc. 이다.
2. 東醫寶鑑의 蜀椒는 초피나무 *Z. piperitum* De Candolle이고, 秦椒는 산초나무 *Z. schinifolium* Sieb. et Zucc. 이다.
3. 山椒 약용부위는 KP, ChP, JP, DP, TP 모두 열매껍질 (Zanthoxyli Pericarpium)이며, JP에서는 열매껍질을 Zanthoxyli Fructus로 표기하고 있다.
4. 神農本草經에서는 약용부위가 씨를 포함한 열매이었으며, 集注本草에서 처음으로 씨가 분리되어 椒目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고, 이후 열매껍질과 씨가 서로 다른 약재로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5. 椒紅은 溫中散寒의 효능이 있으며, 椒目은 利水消腫, 祛痰平喘의 효능이 있다.
6. 東醫寶鑑에 川椒, 椒目, 椒紅이 배합된 처방은 모두 46개 처방이었으며, 이 가운데 川椒 39개 처방, 椒目 5개 처방, 椒紅 2개 처방이었다.
7. 열매 크기는 산초는 평균 4.88mm이었고, 초피는 4.45mm, 화초는 4.63mm이었고, 씨 크기는 산초는 3.08mm이었고, 초피는 2.94mm, 화초는 2.95mm로, 열매와 씨 모두 산초가 가장 컸다.
8. 씨를 포함한 열매 100개의 전체 무게는 초피는 3.48g, 산초는 2.94g, 화초는 2.16g이었고, 열매 껍질의 무게는 초피는 1.45g, 산초는 1.69g, 화초는 0.98g이었으며, 씨의 무게는 초피는 2.03g, 산초는 1.25g, 화초는 1.18g으로, 열매 전체와 씨의 무게는 초피가 가장 무거웠으나, 열매 껍질의 무게는 산초가 가장 무거웠다.
9. 씨가 열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한 결과, 초피는 58.33%, 산초는 42.52%, 화초는 54.63%으로 초피와 화초는 씨가 열매껍질보다 무거웠으나, 산초는 가벼웠다.
10. 山椒에 씨를 20.0% 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씨를 椒目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규정이다.

이상에서 山椒의 이물 규격에서 씨가 20.0% 이하인 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山椒의 약용부위를 열매껍질로 한정한다면, 한의학 임상에서 꼭 필요한 椒目の 유통을 위해서, 먼저 椒目を 山椒에서 독립시켜 새로운 약재로 제정하여야 하며, 이 후에 山椒의 이물 규격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6년도 가천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1. Guang GG edit, Yang PJ annotate, Shennong-bencaojing jiaozhu, Beijing : Xueyuan publisher, 1998:166, 238.
2. State Administ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Zhonghuabencao, Vol. 8, Shanghai : 1999:(4):976-984.
3. Tao HJ, Shang ZJ recension, Mingyibeilu(recension), Shanghai : Shanghai Kexuejishu publisher, 1986:219.
4. Su J compilation, Shang ZJ recension, Xinxiubencao, Hefei : Anhui Kexuejishu publisher, 1981:343-344.
5. Lu DX, Li F, Kaibaobencao, Hefei : Anhui Kexuejishu publisher, 1998:278, 289.
6.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e Korean Pharmacopoeia 11<sup>th</sup> Edition, Cheongju :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4:1152-1153.
7. The Pharmacopoeia of Japan 17<sup>th</sup> Edition Online, 2016:1812.
8. SJ Park, IR Kim, The Comparative Study on Zanthoxylum Peel's Impurity Tolerance Based on Pharmacopoeia by Countries,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2010;25(1):45-54.
9. The Korean Pharmacopoeia 3<sup>th</sup> Editio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ivision revision 40, 1976.
10. Chinese Pharmacopoeia Commission, Chinese Pharmacopoeia, Beijing : Zhongguo yiyaokeji publisher, 2015:159-160.
11. Pharmacopoeia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Health,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armacopoeia 5<sup>th</sup> Edition, Pyeongyang : Medical science publishers, 1996:244.
12. Xing zheng yuan wei sheng shu tai wan zhong yao dian bian xiu xiao zu bian zuan, Taiwan Herbal Pharmacopoeia 2<sup>nd</sup> Edition, Taipei : Xing zheng yuan wei sheng shu zhong yi yao wei yuan hui, 2013:141-142.
13. The Korean Pharmacopoeia 1<sup>th</sup> Editio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ivision revision 25, Korean

- health and social division, 1958.
14. The Korean Pharmacopoeia 2<sup>th</sup> Editio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ivision revision 14호, Dongmyeong publisher, 1967.
  15. The Korean Pharmacopoeia 4<sup>th</sup> Editio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ivision revision 82-4, 1982.
  16. The Korean Pharmacopoeia 5<sup>th</sup> Editio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ivision revision 87-20, Korean Public Health official compendium Association, 1987.
  17. The Korean Pharmacopoeia 6<sup>th</sup> Editio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ivision revision 92-28, Korean Public Health official compendium Association, 1992.
  18. The Korean Pharmacopoeia 7<sup>th</sup> Edi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ision 1997-92, Korean Public Health official compendium Association, 1997.
  19. The Korean Pharmacopoeia 8<sup>th</sup> Edition,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vision 2002-73,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2.
  20. The Korean Pharmacopoeia 9<sup>th</sup> Edition,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vision 2007-87,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7, 940-941.
  21. The Korean Pharmacopoeia 10<sup>th</sup> Edition,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vision 2012-129,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2.
  22. Zhen Q write, Shang ZJ edit, Yaoxinglun, Hefei : Anhui Kexuejishu publisher, 2006:82.
  23. Su S. Dogyengboncao, Longyuan publishing house, 1988:336-337, 354-355.
  24. Wu W. Rihuzibencao, Hefei : Anhui scientific technique literature publisher, 2005:138.
  25. Li SZ, bencaogangmu, Beijing : Zhongguo zhongyiyao publisher, 1992:1514-1519.
  26. Heo J, Donguibogam, Hadong : Donguibogam publisher, 2005:2019.
  27. WC Lee, Lineamenta florum Koreae, Seoul : Academy-book, 1996:643-645.
  28. M Hiroshi, Illustrated Medicinal Plants of the World in Color, Tokyo, Hokuryukan Co, 1988:257.
  29. The Japanese Pharmacopoeia Dispensatory fifteenth Edition, Tokyo : Hirokawa books, 2006:300-302.
  30. Ministry of Home Affairs notification revision 21, The Pharmacopoeia of Japan 5<sup>th</sup> Edition, 1932: 160-161.
  31. Ministry of Health notification revision 32, The Pharmacopoeia of Japan 6th Edition, 1951:563-565.
  32. Ministry of Health notification revision 44, The Pharmacopoeia of Japan 9<sup>th</sup> Edition, 1976:365-368.
  33. HJ Wang, Zhongyaocaichanxiao, Chengdu : Sichuan-kexuejishu publisher, 2004:376.